

● 총체적 폐기물 자원 시스템(Holistic Resource System) 도입 시 연간 27억 6천만 톤의 이산화탄소(CO2) 감축 가능 예측

● 런던에 소재한 유노미아(Eunomia) 컨설팅 기업이 재활용 장비 제조업체인 톰라(TOMRA)의 의뢰로 수행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, 폐기물의 최적화된 조합을 배치하는 "총체적 자원 시스템" 활용 시 연간 27억 6천만 톤의 CO2 감축이 가능하다는 예측 결과를 보여줌

● 총체적 폐기물 자원 관리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폐기물 수거, 분류 및 재활용 관리 관행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 효율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함

● ▲ 회수율이 90% 이상인 페트병 및 금속 음료 용기의 보증금 회수 시스템은 폐기물 감축과 고품질의 탄소 집약도가 높은 재질의 포획량 극대화 ▲ 그 외 생활폐기물은 바이오 폐기물, 종이, 섬유, 전기·전자제품만 분리수거하여 폐기물 재활용 및 탄소 포획 극대화 (단, 잔류 폐기물 추가 분획 필수) ▲ 혼합 폐기물 분류를 통해 플라스틱 및 기타 고탄소 물질의 소각 또는 매립 시 불필요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, 최대한의 폐기물 재활용 자원 확보가 필수 백스톱이므로 지금 투자 우선순위로 고려함

● 총체적 폐기물 관리 모델의 전 세계적 적용을 통해 CO2 배출량 최대 5% 감축 가능

● 지역별로 최적화된 총체적 폐기물 관리 모델을 통해 전 세계 CO2 배출량을 최대 5%까지 감축 가능하며, 이는 전 세계 모든 상업용 항공기의 CO2 배출량이며, 도로 위 차량의 65%가 생산하는 CO2 배출량에 버금감

● 총체적 자원 시스템은 생산자 책임 확대, 보증금 반환 계획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 절차 등의 정치적 프레임워크 규정의 이상적인 조합임